



연중 제6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많이 감사드렸는지요?

그리고 많이들 웃으셨나요?(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ㅋㅋ)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보니 행복해진다고들 하잖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늘 감사드리며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봅시다.

새로움이란 많은 사람을 설레게도 만들지만 가끔 두렵게도 만든다. 새 집, 새 옷, 새 핸드폰, 새 차, 새 TV, 새 본당 신부님(?) 등 설레지만 또 어떤 것일지 어떤 분일지 알아보는 데 힘들어 하기도 한다. 골동품이 좋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의식을 갖게도 한다. 안주하려는 마음에 채찍질을 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면서도 또 듣는다. 좋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시는 볼 보지 싶은 사람도 있다. 듣고 싶은 말이 있는가하면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기분 좋게도 하는 반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들어도 기분 좋을 수 있는 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꼭 뭔가를 해야 할 상황에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상황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기존의 계명을 새롭게 가르치신다. “~~~라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과거의 계명과 가르침을 없애거나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새로운 각도로 율법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 주신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신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력으로 새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기존 것에 안주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에 마음을 열어 놓고 더 넓은 마음으로 가르치신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은 마음속에 간직한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어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구성진 율리아노 신부 | 거창 본당 주임



제 1 독 서 집회 15,15-20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 2 독 서 1코린 2,6-10
복 음 마태 5,17-37

주일 진레



기 도

연작 십자가의 길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다

진선진 마태오 신부/ 반송 본당 주임



누군가가 코스모스 길에 의자를 버려두고 갔네. 코스모스(우주) 위에 놓여진 낡고 버려진 의자. 우주 위에 제일 높은 권위를 지닌 것처럼 하느님을 심판하던 빌라도의 권력이 문득 생각나게 만든다. 결국은 이 낡은 의자처럼 이 땅의 권력 역시 사라져 가고 잊혀져 가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살 수 있다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겠지. 사라져 가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산다면 어디에 앉아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빌라도

나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린다. 어제 밤 아내의 꿈자리도 그렇고 그와의 만남이나 상황을 보면 별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요구가 거세 결국 그 요구를 내가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यो.”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만 그와의 만남을 악연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좋은 만남을 망쳐버린 것도 모자라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만 것이다.

베드로

빌라도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 서 계신 주님께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먼발치에 서 있는데도 그분의 눈은 나만을 바라보는 것 같다. 호수에서 처음 부르실 때, 어망을 던지고 있던 보잘것없던 나의 겉모습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왜 나는 그때처럼 그렇게 그분의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인가. 그분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내 죄를 감출 수 없기 때문이겠지. 옛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바로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눈길에 힘입어 당신을 온전히 따랐으면 하는 마음이다.

성모 마리아

아들 예수님이 잡혀서 총독관저 앞에 있다는 전갈에 모든 것이 내려앉는 마음을 달래면서 달려가 보니, 이미 총독관저 앞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다. 사람들은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내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는다. 사람들이 군중으로 변하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마음 안에 표출되지 못했던 자신의 분노라는 감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자비로운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뿐.

예수

한밤중부터 아침까지 이리저리 끌려 다니느라 지쳐있는 나의 모습은 한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 그 거룩함의 영광은 한낱 아득한 먼 옛날이야기처럼 사라지고 없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알았던 그들이 어디서 그런 악이 나오는지 나를 죽이라고 큰소리로 아우성들이다. 그 아우성과 그 것에 몰려 내뱉는 빌라도의 사형언도는 거대한 파도소리처럼 덮쳐와, 결국 나를 희생 제물인 어린양으로 만든다. 그 순간은 나를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우신 그 뜻이 이해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겠지. 나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신앙과 의심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그들은 불안했을 것이다. 예수가 떠난 자리에 남겨졌던 사도들 말이다. 공범으로 지목되어 체포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겠지만, 믿고 사랑했던 그이가 동료의 배신으로 살해당하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토록 허무하게 사라진 자리에서 불안은 공포보다 더 서늘하고 집요하게 사도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불안은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한 '실존적 불안'과 같은 종류일지 모른다. 틸리히는 구체적 대상이 있는 공포와 달리 불안은 극복하고 맞설 대상이 없기에 인간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내쳐진 운명, 의미를 상실한 공허함,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무력감과 죄책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사도들이 맞닥뜨린 상황에는 맞서 싸울 대상이 없었다. 그러기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 불안과 혼란의 와중에 죽은 예수가 살아 왔을 때 사도 토마스가 보였던 반응은 의심이었고, 질문이었다. 그는 솔직하고 투명했다.



카라바지오, 〈의심하는 토마스〉

토마스는 워낙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에게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요한 14,5-6) 살아 돌아온 예수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 카라바지오(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는 그의 그림 〈의심하는 토마스〉에 그 순간의 긴장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스스로 옷자락을 걷어 옆구리를 드러낸 예수는 토마스의 손목을 잡고 상처의 절개부를 만져보게 하고 있다. 이마와 양미간에 주름이 가득한 토마스는 때 묻은 손가락을 예수의 상처에 깊숙이 찔러 넣는다. 마

치 부검의처럼 진지한 그의 주변에 주체할 수 없이 궁금한 눈으로 상처와 손가락을 보고 있는 다른 두 사도들이 있다. 그들도 토마스 못지않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뿐이다.

불안과 의심을 이번 달 주제로 꺼냈으니, 요즘 모두를 불안과 의심으로 몰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해야겠다. 불안에 짓눌린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혐오와 맹신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창궐하는 불안에 우리는 혐오와 맹신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퍼져 나온 전염병에 대한 확실치 않은 근거들을 인격화하여 타자에게 투사하고, 마치 ‘그들’을 거부하고 배제하면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처럼 인종차별과 혐오를 부끄럼 없이 쏟아내고 있다. 불안할 때 인간은 확실한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기에 익명의 다수가 퍼뜨리는 정보들, 정치인들의 정략적 발언이 대중의 신조와 신념이 되어버렸다. 믿기 어렵고 그로테스크한 정보가 오히려 빠르게 확산된다. 자극적일수록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혐오와 맹신 - 불안에 대한 이 대응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의 역사에는 기득권자들의 생활권이 위협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고, 불안을 부추기는 거짓 선동이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예수가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자. 예수는 불안을 합리적 의심과 질문으로 표현한 토마스를 내치지 않았다. 그 역시 합리적으로 대응했다. 지극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직접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결국 손가락을 넣어보고 난 후 토마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Dominus meus et Deus meus)”이란 엄청난 고백을 한다. 예수가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한 최초의 고백이다. 실증을 통해 확신을 얻고 불안을 극복한 듯 보이는 토마스에게 예수는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가르침을 준다. 실증을 통한 믿음 외에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는 예수의 응답에 등장하는 그리스어 단어 ‘πιστεύω’는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를 뜻하는 동사로, 문맥과 문장의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중립적인 단어다. 이 단어 자체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맹목적, 무조건적인 믿음을 종용하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즉, 예수는 인격이 상실된 어떤 것도 - 그것이 권위이건, 실증적 사실이건, 혹은 선동이건 -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하고 물으며, 불안해하는 토마스에게 사람 예수를 상기 시키고 있다. 그와 토마스가 쌓아온 관계,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 속, 서로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일깨우고 있다.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솔직한 질문은 성숙한 관계에 반드시 필요하다.

진지한 신학적 질문에는 대부분 실존에 대한 불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 앞에 선 유한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요소다. 불안을 거부하고 확신과 신념만 붙잡으려 할 때 믿음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 우상숭배는 나와 다르거나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혐오로, 또 나의 불안을 잠시 잠재워 줄 알뜰한 확실성에 대한 맹신으로 표현된다. 믿음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념이 아니다. 믿음은 하느님과 내가 함께 쌓아 가는 관계다. 모든 사랑의 관계가 그렇듯, 나의 이성과 감성을 사랑하는 이, 하느님께 전인적으로 던지며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숙해 가는 실존적 참여다.

얼마 전 내가 가르치는 신학수업에서 대학생들과 ‘신앙과 의심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문득 궁금해져서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목자와,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찬 사목자 중 어느 사목자를 더 신뢰하는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목자를 더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왜 그런가 물었다. 한 학생이 대답한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학생들은 확신과 신념만 가득 찬 사목자에게서 무지와 편견을 보고 있었다.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재석(요셉) 신부

1987년 2월 18일



교구장 동정

정의평화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일시: 2월 18일(화)

장소: CBCK

창원 파티마 성경학교 졸업식

일시: 2월 23일(주일) 14:00

장소: 파티마병원

▶ 교구/본당

본당 사목 방문

2월 18일(화): 함안, 남지

지구장 본당 방문

2월 18일(화): 장재동, 금산, 하대동, 상평동

2월 19일(수): 대산, 창녕, 팔용동, 중동, 사천, 서포선교, 삼천포, 봉곡동, 가좌동, 평거동, 태평동, 고성

2월 20일(목): 칠암동, 문산, 신안동, 진교, 하동, 남해, 장평, 하청, 옥포, 장승포, 지세포, 거제, 고현,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2월 19일(수) 10:00

장소: 명서동성당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2월 20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무처 055·249·7016

공소협의회 회장단 모임

일시: 2월 20일(목) 10:30

장소: 예구공소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제17차 약혼자 주말

일시: 2월 21일(금)~23일(주일) 2박3일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직수여식

일시: 3월 1일(주일) 11: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문의: 성소국 055·249·7061

▶ 위원회/기관/단체

민족화해위원회 정기총회

연습: 2월 19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61·8201

교구평협 회장단 회의

일시: 2월 21일(금)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114

2020.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개강일: 3월 2일(월) 장소: 창원 팔용동 성당

기초 과정-매주 (월) 13:3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연령, 학력)

봉사자 과정-매주 (월) 10:0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 기초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중 1)

지도자 과정-매주 (월) 13:30

수강료: 35만 원

대상: 1) 봉사자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

증 사범2 이상 (1, 2종 1)

문의: 055·249·7061, 010·9088·4864

▶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 기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2월 27일~29일, 3월 5일~8일, 3월 11일~13일,

3월 17일~19일, 3월 23일~26일, 3월 29일~31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2020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추가): 2월 28일(금)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오륜대 토요교회사 강좌

개강미사: 3월 7일(토) 14:00

기간: 3월 7일~10월 31일 매(토) 15:00~17:00(60시간)

수강료: 20만 원 ※선착순 60명에 한함

한윤식 신부: 사건별로 보는 세계 교회사

전수홍 신부: 슬라이드로 보는 세계 교회사

한건 신부: 한국 교회사

문의: 051·515·003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3/24-26, 4/3-5, 4/6~8, 4/28-30

장소: 제주성지 7곳 (한성철 마조리노 신부 성지해설)

문의: 064·805·9890

해외순례: 4월 16일 다낭성지순례 5일

사순 낮피정

일시: 3월 2일(월) 13:00~17:30 장소: 반송성당

주제: 오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영적치유, 내적치유)

강사: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사: 김종필 가브리엘 신부

문의: 010·9421·3377, 010·2585·8919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KOREAN AIR	청년 이스라엘 순례(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9일 349 만원
4월 21일 KOREAN AIR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9 만원
4월 28일	성모발현지 13일 410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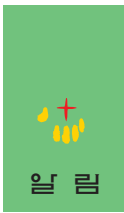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광주가톨릭대학교 학사 일정 변경

2학년 입사: 2월 11일(화) → 2월 19일(수)로 변경
신입생 입사: 2월 12일(수) → 2월 20일(목)로 변경
거숙생 입사: 2월 17일(월) → 2월 24일(월)로 변경

마산교구 낮피정

일시: 2월 24일(월) 13:00~17:30 장소: 월남동성당
주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
강사: 황미란 로즈마리 수녀(뜻정 베니딕토 수녀회)
*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안수 있습니다.

2020-1학기 교구 『여정』 성경공부 일정

- 수강료 : 일반여정 - 2만 원, 은빛여정 - 1만 원(교재비 별도)
-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구 암 동	3.2(월) 20:0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호 계	3.3(화) 10:00	요한복음서
월 영	3.3(화) 10:00	가톨릭서간, 요한 묵시록
	3.4(수) 19:30	마르코복음서
교 구	3.3(화) 10:00	마태오복음서
양 덕 동	3.2(월) 19:30	역사서 1
삼 계	3.4(수) 10:00	예언서
월 남 동	3.5(목) 20:00	역사서 1
	3.3(화) 10:00	마르코복음서
삼 계	3.6(금) 20:00	시서와 지혜서
창 념	3.4(수) 19: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완 월	3.3(화) 20:0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3.5(목) 10: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산 호 동	3.5(목) 20:15	마태오복음서
함 안	3.6(금) 10:40	마태오복음서
의 령	3.6(금) 10:3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상 남 동	3.4(수) 14:00	은빛(지혜여정 4)
양 덕 동	3.3(화) 10:0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삼 계	3.4(수) 10:00	은빛(창세기)
칠 원	3.6(금) 10:00	은빛(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창원지구		
양 곡	3.6(금) 10:4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반 송	3.3(화) 10:40	역사서 2
	3.4(수) 10:30	요한복음서

창원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용 잠	3.5(목) 20:10	바오로 서간
대 방 동	3.3(화) 10:40	가톨릭서간, 요한 묵시록
사 림 동	3.5(목) 20:10	역사서 1
덕 산 동	3.3(화) 10:00	역사서 1
	3.2(월) 19: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사 파 동	3.2(월) 20:00	바오로 서간
	3.6(금) 10:40	예언서
가 음 동	3.5(목) 10:00	요한복음서
명 서 동	3.2(월) 19:30	역사서1
	3.5(목) 12:40	은빛(지혜여정 3)
여 좌 동	3.3(화) 10:00	은빛(요기와 코헬렛)
덕 산 동	3.5(목) 10:30	은빛(지혜여정 1)
진주지구		
가 좌 동	3.4(수) 19:30	바오로 서간
하 대 동	3.5(목) 10:0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산 청	3.6(금) 19:30	바오로 서간
상 평 동	3.5(목) 20:00	바오로 서간
함 양	3.4(수) 19:30	가톨릭서간, 요한 묵시록
금 산	3.3(화) 10:0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신 안 동	3.4(수) 20:10	가톨릭서간, 요한 묵시록
옥 봉 동	3.6(금) 19:30	마태오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문 산	3.2(월) 19:30	예언서
칠 암 동	3.3(화) 10:00	마태오복음서
사 천	3.6(금) 10: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3.6(금) 19: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봉 곡 동	3.4(수) 19: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산 청	3.4(수) 10:30	은빛(지혜여정 3)
봉 곡 동	3.3(화) 10:00	은빛(지혜여정 5)
거제지구·북지시설		
장 평	3.6(금) 10:30	오경 2
대 건	3.6(금) 19:30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3.6(금) 11:10	요한복음서
북 신 동	3.5(목) 10:00	마태오복음서
지 세 포	3.4(수) 19:30	가톨릭서간, 요한 묵시록
태 평	3.6(금) 19:30	오경 1
장 승 포	3.4(수) 19:30	역사서 1
마산교도소	3.4(수) 13:30	마태오복음서
작은예수회	3.5(목) 10:00	은빛(탈출기)
북 신 동	3.6(금) 10:00	은빛(지혜여정 1)
대 건	3.5(목) 10:00	은빛(탈출기)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례	문 의
교 구	2월 17일(월) 19:00	월남동성당	구원의 방법	김선태 신부(야고보, 대전교구)		010·5072·5612
창원지구	2월 17일(월) 19:00	반송성당	믿음의 축복	최경숙(루시아, 인천교구)	정중규 신부(클라로)	010·9421·3377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라파엘여행사

- ◆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4/20,5/6(299만원)
- ◆ 이탈리아주 9일 3/12(279만원)
-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제주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김지역 공항출발, 피서산회, 성지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 순례 1박2일
15개 교구 매월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세상과 함께하는 사랑의 봉헌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가르멜 수녀를 처음 만나는 신자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봉쇄 안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부르심이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닌 상처 속에 숨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홀로 불타고 계신 예수 성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봉헌 축일’인 2월 2일을 수도자들은 ‘축성 생활의 날’로 지내며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립니다. 더욱이 우리 공동체는 올해 수녀님 한 분의 첫 서원을 준비하고 예식을 함께하면서, 수도자로서의 소명을 더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Consecro*는 ‘축성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지

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축성’시키시어 내면으로부터 영혼을 변모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일치를 이루도록 이끄시며, 인간 편에서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소유하도록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활동에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축성 생활로 불림 받은 수도자는 그리스도의 정결과 청빈, 순명의 3대 서원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치겠다는 투신을 표현합니다. 이에 덧붙여 가르멜 수녀는 봉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과의 접촉과 그 혜택을 포기합니다.

서원으로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료되어, 온 인류를 마음에 품고 성심의 상처에 다가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는 가르멜 수녀들은 이러한 봉헌을 기도로 대신합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원의 창립자인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하느님을 뵈고 싶다는 열망’과, ‘교회의 딸’이 되어 영혼들을,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사도적 의지로 수녀원을 창립하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자신의 서원식 날 다음의 구절을 적은 기도문을 수도복 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많은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또 연옥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예수 성심의 상처가 온 세상을 구원하며 상처 입은 모든 이를 성부께로 이끄는 문이 되듯이, 수도자의 서원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 가르멜 수도자는 매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하며 영혼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봉헌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는 기도를 바칠 때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을 때,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할 때, 제병과 포도주를 만드는 등 일상의 평범한 모든 일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는 예수 성심을 포함한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는 주님을 닮고자 세상과 함께 삶으로 응답하는 사랑의 봉헌입니다.

